



스위스재보험, 2008년도 임시(감사전) 사업실적 발표
워렌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를 통해 스위스재보험에 30억 스위스프랑 투자
결정

Contact: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Corporate Communications, London
Telephone +44 20 7933 3445

Corporate Communications, Asia
Telephone +852 2582 3660

Corporate Communications,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663

Investor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4444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취리히, 2009년 2월 5일 - 스위스재보험은 오늘 2008년도 예상
순손실이 약 10억 스위스프랑에 이를 것으로 발표했다. 2008년
12월 31일 기준 주주지분은 약 190-200억 스위스프랑으로
추정된다. 현재 스위스재보험은 자본력 강화를 위한 주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축소 이외에도 주주승인을
거쳐 버크셔 헤서웨이로부터 30억 스위스프랑의 자본을 증자할
계획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20억 스위스프랑의 추가
자본증자를 고려하고 있다.

“ 2008년의 전반적인 성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자사의
근간사업인 손해/생명보험 사업은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 스위스재보험의 최고 경영자 자크 애그랭은 밝혔다. 또한
그는 “ 자본력 강화 조치를 취해 고객의 신뢰를 유지할 것이며
앞으로도 원칙적, 보수적인 사업방식을 유지할 것이다.
스위스재보험에 대한 워렌 버핏의 이번 투자계약은 자사의
견실함을 입증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감사전) 사업실적에 따르면 스위스재보험은 2008년 약
10억 스위스프랑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스위스재보험의 견실한 언더라이팅 실적은 미실현 시가평가
손실을 주로 하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실로 인해 상쇄되었다.
이러한 손실은 스위스재보험의 헤징 프로그램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완된 바 있다.

주주지분은 약 190 - 200억 스위스프랑으로 예상되며 4분기
주주지분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투자부문의 미실현 손실과
환율변동에 있다.

고객솔루션에 대한 집중 및 체계적인 언더라이팅으로 우수한 언더라이팅 실적 유지

스위스재보험은 체계적인 언더라이팅에 집중한 결과 증가하고 있는 재보험에 대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스위스재보험은 2008년 손해보험 부문의 합산비율은 97.4%(할인 전 95.6%)로 여전히 견실한 성과를 유지했다.

생명보험 부문 역시 약 85.5%의 수익률(benefit ratio)을 기록하면서 견실한 실적을 올렸다.

재보험 솔루션에 대한 고객 수요 증가

상당수의 고객들이 자산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보호책을 모색하면서 재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약 2%의 효율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 환율을 기준으로 전체 보험료수입이 약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보험 시장이 경화 사이클로 진입하면서 고객에 대한 효과적 솔루션 제공에 있어 스위스재보험은 유리한 입지에 놓여 있다.

자산관리 재집중으로 금융시장팀(Financial Markets) 활동 축소

전반적인 위험축소의 일환으로 금융시장팀의 활동이 축소되고 기존의 활동도 두 조직으로 재편되었다. 자산관리 조직은 (재)보험사업의 결과물인 자산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고객에게 보험 연계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상품 언더라이팅(Products Underwriting) 및 마케팅(Client Markets)팀의 활동과 연계된다. 미국 회계원칙(US GAAP) 기준 2008년에 전반적으로는 미미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자산운용 부문의 투자 수익률은 연 약 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거시(Legacy)팀은 스위스재보험이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상품을 관리한다. 구조화신용디폴트스왑(SCDS), 포트폴리오 신용디폴트스왑, 금융보증 재보험(Financial Guarantee Re) 및 금융시장팀의 기존 거래업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분야는 SDCS에서 발생한 20억 스위스프랑의 시가평가 손실을 포함해 2008년 약 60억 스위스프랑의 시가평가 손실을 기록했다.

자본관련 조치, 스위스재보험의 대차대조표를 보강하다

버크셔 헤서웨이의 30억 스위스프랑 투자 등 현재의 자본력 강화 조치는 스위스재보험에 더 나은 금융적 유연성을 가져다 주어 고객기회의 활용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현재 스위스재보험은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 당시 현 신용등급인 AA를 유지하기에는 약 15-20억 스위스프랑이 부족했다. 스위스재보험 이사회는 자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결론 지었다. 현재의 추정치를 토대로 하는 경우 증자 규모는 최대 50억 스위스프랑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위스재보험은 버크셔 헤서웨이와 30억 스위스프랑 투자계약 체결에 기본적인 합의를 마친 상태이다. 이번 투자계약은 주주의 동의를 거쳐 최종 성립된다. 이번 투자는 이자율 12%의 전환사채 발행의 형태로 이루어 질 전망이다. 버크셔 헤서웨이는 이를 3년 후 주당 25 스위스프랑의 가격으로 스위스재보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회석화방지 조정 적용).

워렌 버핏은 “ 이번 기회를 통해 스위스재보험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어 기쁘며 자크 애그랭과 스위스재보험의 경영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고 밝혔다.

스위스재보험은 고객기회 활용 및 주주권익을 위한 자본력 강화와 같은 맥락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기존 주주들에게 최고 20억 스위스프랑까지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2008년도에 대한 배당금을 명목상의 금액으로 낮출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스위스재보험은 규제당국의 승인을 얻게되면 손해보험 부문 준비금에 대한 역진전담보(Adverse Development Cover) 계약을 버크셔 헤서웨이와 체결하기로 했으며 이는 총 50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담보를 제공하게 된다.

고객기회 활용에 유리한 입지

스위스재보험의 (재)보험 사업은 견실하며 현재의 조치로 고객기반 확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버크셔 헤서웨이의 투자, 신주인수권 제공, 배당금 축소 등의 자본력 강화조치 및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축소를 통해 양질의 고객 솔루션을 제공하고 향후 (보험)시장의 호조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입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본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임시적인 것으로 감사전의 추정치를 토대로 한다. 최종 실적 자료는 달라질 수 있으며 스위스재보험은 2009년 2월 19일, 2008년 최종 연간사업실적을 보고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세계 최대의 다각화된 글로벌 재보험사 중 하나로 전세계 25 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A-' 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a2' 를,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A+' 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913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 지역 본부는 홍콩에 있다. 2006년 스위스재보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첫 사무소를 개설한지 50년을 맞이했다.